

광주서 일가족 관련 연쇄 확진 7명째…‘N차 감염’ 비상

서울 확진자 접촉…증상 있었지만 1주일간 모임 등 일상생활

순천·나주·곡성·목포 곳곳서 확진…산발 감염 지속 가능성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선 일가족 확진 사례 등 산발적 감염세가, 전남에선 순천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도내로 퍼지는 양상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일가족 4명의 가족, 지인으로 ‘N차 감염’ 사례다. 이들은 증상이 나타나고 도 최대 1주일 간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골프 모임 등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긴장도가

완화되면서 유증상자들이 뒤늦게 검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3월 광주 확진자 397명 중 유증상자는 178명(44%)이며 이 중 3일 이상 검사 지연 사례는 112명(62%)에 달한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광주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며 긴장감이 완화된 것 같다.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머물고 검사를 받는다는 수칙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

전남에선 최근까지 순천에 확진자가 집중됐으나 나주와 곡성, 목포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순천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12일에는 목포와 곡성에서 한 명씩, 나주에서 2명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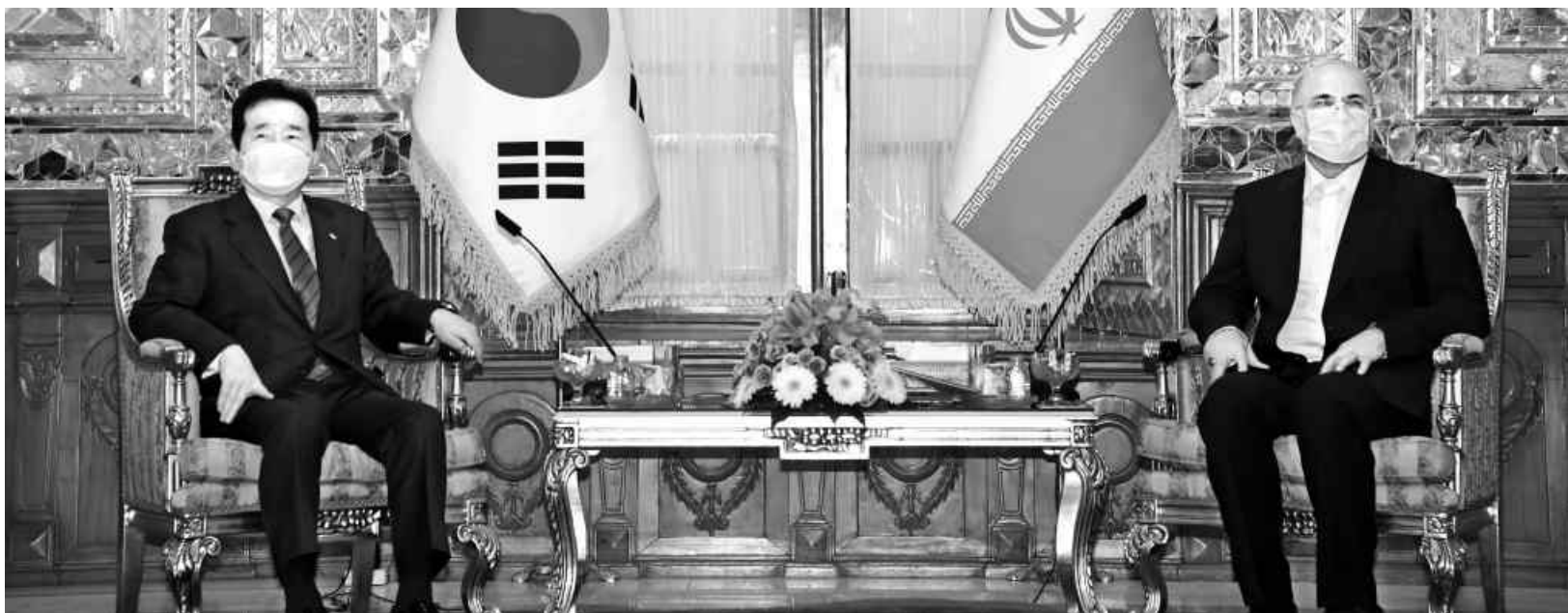
곡성 확진자(전남 974번)의 경우 순천 확진자와 접촉 과정에서 감염됐다. 순천 택시기사인 확진자의 접촉자(전남 964번)와 최근 만나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 확진자(전남 973번)의 경우 서울 성북구 지인(성북구 1443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 확진자 2명(전남 975, 976번)은 최근 전북지역을 함께 여행 갔던 광주 거주 지인(광주 2239번)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이달 들어 59명(해외 유입 제외)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9명이 순천에서만 나왔다. 전남 방역당국은 순천지역에 코로나가 유입된 최초 경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감염 경로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다수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이란 테헤란에서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 이란 부통령과 회담…“이란핵합의 복원 측면지원”

이란 부통령 “자금동결,韓이미지 훼손” 정총리 “해결에 협력”

이란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에사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회담하고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복원 및 한국에 동결된 이란자금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와 자한기리 부통령은 약 1시간 30분간 대화를 나눈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당사국 간 건설적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측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7조7000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관련국들과 적극

적으로 소통해 이란 핵합의 복원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상과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측에 자금 동결을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이란이 국내 화학운반선 한국계미호를 억류한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도 동결자금을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문제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한기리 부통령 역시 회담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자한기리 부통령은 “국제적 적법성이 결여된 미국의 불법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가 침체에 빠졌고, 이란인 사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손상됐다”며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나아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한국이 자금을 동결해 의료장비, 약품, 생활필수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한기리 부통령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제약사 간 백신개발 협력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교역 확대, 학술교류 및 의료 분야 인적 교류 재추진 등의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이란 핵합의 복원 시 바로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협력 점검협의체’를 설치해 협력 대상 사업을 미리 발굴·준비하기로 했다고 정 총리가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한국계미호 억류 사건에 대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대응 앞장 ‘우리동네 영웅’ 소개합니다

행안부, 17개 시·도와 협업

4월 경기3명·인천3명 선정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한다.

‘우리동네 영웅’ 발굴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려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월 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된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계양

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서구)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생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쿠키봉사대의 김미옥씨(수원시)가 뽑혔다.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 박유근씨(연천군),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돌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장 김영찬씨(부천시)도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 포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건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경북, COP28 남해안남중권 전남·경남 공동개최 지지

전남도가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에 광주시와 경북도가 지지를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오전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성명서에서 이 지사는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남해안남중권이 탄소중립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영·호남이 하나 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경북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이용섭 광주시장도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과 경남은 함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COP28을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지지한 것에 감사드리고, 전남이 COP28 유치와 함께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인 COP28은 전남·경남이 인천, 제주, 경기 고양시 등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광주와 경북의 지지 선언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 노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아 **살니다**
지분 환영

당일처리. 010-6837-4700

잘 안팔리는 교환
전국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분할합병공고

2021년 4월 9일 주식회사 광천(갑)과 주식회사 아림전기(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재산(영역)의 일부(소방시설공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인 일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3일

(갑) **주식회사 광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98번길 59-4(가경동)
대표이사 홍만수

(을) **주식회사 아림전기**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동로 90-29
대표이사 김려옥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광안구 송정동 845-10번지 송정역 한국아파트 818호
- 계약자: 정 선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4월 13일

산행안내

4월18일(일)
▲광주K산악회 4월18일(일) 충북 충주, 보련산&국망산,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 카페 광주K산악회 ☎ 010-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